

한편, 국내 사업자의 낸드플래시램 시장은 전세계 낸드플래시램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ataquest에 따르면, '07~'11년 전세계 낸드플래시램 성장률은 D램을 추월하여, 전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22.4%에서 '11년 38.6%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세계 메모리 전망('02~'11)

	'02~'06 CAGR	'07~'11 CAGR	'06년 비중(백만달러, %)	'11년 비중(백만달러, %)
DRAM	22.0%	-3.7%	34,293(56.4%)	29,936(45.4%)
NAND Flash	55.0%	10.6%	13,650(22.4%)	25,449(38.6%)
전체 메모리	21.0%	0.9%	100.0%	100.0%

자료: Dataquest(2007. 9.)

**참고자료:**

- [1] Dataquest, “Forecast: NAND Flash Supply and Demand, Worldwide, 2006~2008 (3Q07 Update)”, 2007. 9.
- [2] \_\_\_\_\_, “Forecast: Memory, Worldwide, 2001~2011(3Q07 Update)”, 2007. 9.

---

**한-미 FTA 통신서비스 부문 파급효과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분석**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박민정  
(T. 570-4345, [mjpark@kisdi.re.kr](mailto:mjpark@kisdi.re.kr))

**1. 개 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간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요청<sup>1)</sup>에 따라 한-미 FTA의 경제전반 및 부문별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7년 9월 한-미 FTA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를 발

---

1) USTR은 2007년 4월 1일 USITC에 연구를 의뢰

행하였다. 이는 한-미 FTA의 미국 경제 전반 및 특정 산업 부문별, 그리고 미국 고객의 이익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assess)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FTA 파급효과 예측 보고서에 비해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보고서는 GDP, 수출입; 총 고용 및 고용도 성장; 협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만한 생산, 고용, 경쟁력 있는 산업; 미국 소비자의 이익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USITC의 미국입장에서 바라본 한-미 FTA의 파급효과 분석 중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한-미 FTA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의 통신서비스 부문 주요 내용

### 가. 한-미 FTA 통신서비스부문 파급효과에 대한 USITC의 평가

USITC는 한-미 FTA의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미국 통신사업의 對한국 국경간 수출, 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對한국 국경간 수입,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우선, 미국 통신사업의 對한국 국경간 수출과 관련, USITC는 한-미 FTA가 약간의 (minimal)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음성통신서비스에 있어 양 국간 이미 높은 수준의 가격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화 통화량 자체는 25% 증가한 반면, 미국 기업 수입은 65% 감소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국제전화서비스의 정산요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가격 하락 및 미국 사업자들의 총 수입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2005년 미국의 對한국 통신서비스 국경간 수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총 150백만 달러, 전체 통신 수출의 3%만을 차지하였다.

반면, USITC는 한-미 FTA의 결과 100% 소유 자회사 설립 또는 기존 통신사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간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의결권을 가진 발행주식의 49%로 제한되어 지고 있으나, 한-미 FTA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한-미 FTA 발효 2년 후 100% 외국인 소유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치열한 경쟁과 성숙된 수출시장, 그리고 상용 이동 서비스 및 별정사업자 관련 FTA 면제는 미국 기업의 한국 국내시장진입을 방해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 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투자 조항은, 미국 기업이 한국 내 국제 기업 자료, 가상사설망, 국제 프로토콜 기반 기업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는 미국 통신서비스 국경간 수입 또한 수출과 더불어 약간의(minimal)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양국간 음성전화서비스에 있어 높은 수준의 가격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CC의 정산요율 하락을 위한 노력은 2001년에서 2005년 동안 분당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2005년 미국의 통신서비스 수입은 상대적으로 작은, 총 74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USITC는 또한, 이미 미국시장이 규제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가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또는 미국 내 기존 한국 자회사들의 판매량에 있어 한-미 FTA가 약간의(minimal)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USITC는 현재 Helio<sup>2)</sup>를 통해 미국에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 텔레콤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더불어, USITC는 미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고도 경쟁, 그리고 미국 내 이동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FTA 면제는 한국 통신사의 추가적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나. 통신서비스 조항 요약

한미 FTA 제14장(통신서비스) 조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하에 자국 영역 내 또는 국경간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는 상대국의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하에 망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및 동등 다이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한 당사국의 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회사, 계열사 및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와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경쟁보장장치, 서비스 재판매, 망 요소 세분화, 상호접속, 전용회선, 설비 병설, 전주·관로·도관 및 통행권에 대한 접근, 해저케이블 관련 추가적 의무조건이 부여된다.

제14장은 또한, 양국 정부가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FTA 의무사항에 따라 이행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은 허가 절차, 희소자원의 배분 및 이용, 분쟁해결에 있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속서 14-가 및 14-나에는 상용 이동서비스의 공급자, 별정통신 사업자 및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면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부속서 1은 한국의 통신서비스 부문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sup>3)</sup>

2) Helio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 Earthlink와 50:50의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임

3) •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9%

다. 관련단체의 의견

USITC는 미국 산업 대표자들이 전반적으로 통신서비스 장의 내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 예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Services and Electronic Commerce (ITAC 8) 보고서는 한-미 FTA가 더욱 개방되고 자유화된 한국의 통신시장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ITAC 8 보고서는 특히 FTA 발효 2년 후 외국인투자제한의 철폐, 해저케이블 시스템,<sup>4)</sup> 더욱 확장된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sup>5)</su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KT, SK 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여전히 존재하며, FTA의 많은 조항이 별정통신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TIA) 또한 통신서비스 조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미 FTA를 통하여 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며, 특히, 공중통신망,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서비스 재판매, 망 요소 세분화 및 해저 케이블 육양국에 대한 접속 및 사용 관련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TIA는 한-미 FTA의 통신서비스 조항 중 많은 조항이 WTO 기본통신협정 이상의 것임<sup>6)</sup>을 강조하였으며, ITAC 8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한-미 FTA 조항이 기존의 무역협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였다. 2년 후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와 관련하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TIA 역시 KT와 SK 텔레콤의 투자제한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Coalition of Services Industries(CSI) 역시 한-미 FTA를 통하여 더욱 개방되고 자유화된 통신시장이 육성되고, 미국 기업의 한국 통신시장 접근 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 평가하며 한-미 FTA의 통신서비스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CSI는 망 접속, 비용기반 상호접속 동등 다이얼, 경쟁 보장장치, 서비스 재판매, 기술 및 표준의 선택과 관련한 조항 및 2년 후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전에 한국

-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인이 총 지분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9% 이상을 제어하는 기관에게는 부여되지 않음
  -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KT 대주주 불가. 단,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미만 보유하는 경우 제외
  - FTA 발효 2년 후, 한국은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기간통신사업 허가 보유 가능. 단, KT와 SK 텔레콤 제외
- 4) 해저케이블의 국제전용회선, 백홀설비, 설비병설, 전송링크 관련, 기존의 협정보다 더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5) 기존의 협정에서 보다 나아가, 양 당사국이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술 및 표준을 지정하는 조건을 제한
  - 6) 번호이동성, 동등 다이얼 조항 및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의 확장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sup>7)</sup> 하였던 CSI는 한-미 FTA 협정문의 통신 규제기관이 모든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는 조항에 강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 3. 결 어

USITC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의 통신서비스 부문은 자국의 對한국 수출입 및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 투자조항은 기업정보, 가상사설망,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서비스 등을 다국적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단, 높은 수준의 경쟁, 일부 부문에서의 시장 성숙, 일부 FTA 면제조항은 미국 기업이 한국의 유무선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되고, 양국 간 경쟁 유도적 가격 하락은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수출입에 대한 FTA의 영향력에 제한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통신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한-미 FTA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USITC의 본 연구보고서는 한-미 FTA 비준 통과 가능성을 높여 주는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자료:

- [1] USITC,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2007. 9
- [2] 미국인들이 바라본 한미 FTA, KOTRA, 이용하, 2007. 9. 26
- [3]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정문, 2007. 5. 25

7) CSI는 다음의 이유로 한국의 통신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함에 우려를 표명하였음.

- 정통부가 시장진입, 가격책정, 서비스 질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 책임 및 규제관련 대부분의 책임을 보유
- 통신위원회가 정통부 건물 내 존재

따라서, CSI는 완전히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 공평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 및 규정을 발행할 권력을 부여하기를 권유하였음